

국힘 광주시당, 현안 해결 노력... '광주 패싱' 개선 될까

지도부에 새 전남대병원 건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등 협조 요청 23일 광주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내년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논의

현 정부의 '광주 패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당 지도부에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등 지역 현안 해결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 서범수 당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지역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국회 제출 목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어 시당이 내는 '지역 목소리'가 광주시 현안 해결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민선8기 광주시-전남도의 1호 상생 사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 사업에서 탈락하고, AI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여러 사업이 정부 사업에서 제외·보류되는 등 '광주 패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주시 국비 보조금을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인 데다 국립기관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도 광주시에 50% 분담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광주 패싱'을 이어오고 있다.
또 광주시 핵심 사업 중 상당수가 내년도 정부 예

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분위기여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정부·여당에 내는 지역 목소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가 지역 현안으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인공지능 실증밸리 확산(658억원),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도시규모 실·검증지원센터 구축(42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광주AI영재고 설립(426억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32억원), 광주시 노후상수도 정비(24억원) 등 6개 사업이다.
김정현 위원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관

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과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광주시 주요 역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오는 23일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경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중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김경수, 우리 진영에 시너지 효과"

"경쟁 많을수록 좋아...대통령이 거부해도 법안 처리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우리 진영을 강화하는 큰 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TV에 출연해 "자갈만 모으면 자갈더미,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지만, 모래와 자갈, 물, 시멘트를 섞으면 콘크리트라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적 대선후보 경쟁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적 행보가 가능해지면서 당 내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저도 '이재명 단일 체제'라 비난받을 정도로 (당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약간 걱정"이라며 "숲은 우거질수록 좋고, 경쟁은 많을수

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진영이 이기는 게 중요하고, 누가 되느냐는 그 다음"이라며 "개인의 욕망 때문에 우리 진영이 이길 확률을 낮추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야당 단독으로 분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등 각종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그만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끊임없이 거부해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힘, 당정 간 소통 부재로 총선 패배"

총선백서특위, 백서 초안 의결... '김 여사 문자 논란' 등 패인 꼽아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4·10총선백서 초안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비롯한 당정 관계 문제를 총선 패배 요인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만 집중했던 선거 캠페인, 비례대표 공천 반복 등을 패인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백서 초안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백서는 당 최고결기기구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간될 예정이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총선 패배는 특정 인물, 특정 기능 하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백서 초안은 당정관계와 관련,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대파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의대 증원 등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잇단 악재에 당정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문자 논란도 거론됐다. 해당 논란은 지난 1월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대국민 사과를 하셨다는 뜻을 당시 비상대책 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한 대표가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김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백서에) 적절한 분량을 충분히 할애했다"고 했다.
당의 '메가시티 서울'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기조가 당정 간 정책 조율이 실패한 사례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당 차원의 '이조 심판론' 전략, 호남 몫을 보장하지 않은 비례대표 공천 결과 및 명단 반복,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지원 부족 등이 패인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이밖에도 지역구 공천에서는 잇단 막말과 실언, 5·18 폄훼 논란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장예찬 후보 관련 논란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연합뉴스

국힘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 전현희 제명 추진

민주당에 사과 촉구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며 "민주당은 전 의원의 발언이 갖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막말과 욕설, 망언의 끝은 대체 어딘가"라고 지적했다.
또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면 인권을 유린해도 되고, 대통령이면 인권을 유린당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주변 인물들이 각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두고 "전현희 의원에게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명의 살인자'인가"라고도 반문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의도 SBS 라디오에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경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발언)"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발(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야양 떠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의원 자격심사 등을 통해서 국회에서 본패를 보여주는 징계를 해야 한다"며 "원내 협상에도, 양당 간의 협상에서도 이런 부분 등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

사 탄핵' 청문회 도중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일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미월 2023년 6월 기준)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